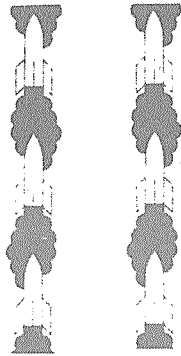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1988. 10. 1 ~ 10. 31〉

- 10. 1 : 貿協,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무역어음시장의 개발 등 금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.
- 10. 2 : WSTS(세계반도체조사기관),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무려 38.2% 늘어난 450억 달러에 달하고 오는 91년에는 5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.
- 10. 2 : 經濟企劃院, 올 4분기중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13% 수준으로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28%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.
- 10. 3 : 遞信部, 연말부터 국산 전전자교환기를 이용, ISDN 시범운용을 실시.
- 10. 4 : 遞信部, DB 구축 및 이용촉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기로.
- 10. 4 : 科技院, 보급형 CAD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.
- 10. 4 : SIA(美반도체산업협회), 90년부터 美 반도체시장이 후퇴할 것으로 예측.
- 10. 5 : 科技處, 기술공여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기술협력의 성과를 제고시켜 나가기로.
- 10. 5 : 遞信部, TV 문자다중방송을 내년부터 실용화하기로.
- 10. 5 : 商工部, 9월중 수출입은 수출이 53억 6,800만 달러, 수입은 42억 800만 달러를 기록.
- 10. 6 : KIET, 우루과이 라운드의 지적소유권 협상에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.
- 10. 7 : KIET, 中國은 물가 및 임금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通貨도 계속 평가절하 추세여서 우리 기업의 對中國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.
- 10. 8 : 本會, 전자제품의 수출이 지난 9월 20일께 100억 달러를 기록, 지난 해보다 100억 달러 달

성 시점을 3개월 가량 앞당겼다고.

- 10. 8 : 情報産研, 정보화 촉진 금융제도 소프트웨어 품질공인제도의 신설이 시급하다고.
- 10. 8 : 工振庁, 국가기술지도 총괄체제를 확립, 향후 5년간 5,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.
- 10. 13 : 科技處,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전문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연구 V.A.N의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.
- 10. 14 : 遞信部, 무선호출 서비스 확대와 관련, 입출력 프로세서 설치교환국과 주변지역 교환국간에 직통 증계선을 구성키로.
- 10. 15 : 貿公, 금년중 소련과의 무역사무소를 교환 설치키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중.
- 10. 18 : KDI,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, 당초의 정부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, 경기하강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.

- 10. 18 : 工振庁, 품질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품질관리 연구개발상을 올해부터 수여키로 했다.
- 10. 22 : 科技處, 과학기술관련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기존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.
- 10. 24 : KDI, 원貨의 對美 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貨의 실질구매력을 평가하는 실질실효환율은 오히려 약간의 고평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.
- 10. 25 : 工振庁, 가정용 전압의 승압이 100V에서 220V로 확대됨에 따라 69개 품목의 100V전용 전기제품에 대해 오는 93년까지 4단계로 나눠 생산 금지토록 했다.
- 10. 25 : 美 財務省, 美國의 한국, 대만 등 對 아시아 NIES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, 이들 국가들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.
- 10. 25 : 本會, 금년 전자수출은 147억 5,000만 달러에 달해 당초 계획보다 20억 달러가 초과 달성될 전망이다.
- 10. 26 : 컴퓨터研組,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국산모델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.
- 10. 27 : 遞信部, 전전자교환기의 국산화율을 70%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교환기 및 통신장비의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기로.
- 10. 27 : 美 商務省, 미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.
- 10. 27 : 韓銀, 9월중 경상수지흑자가 월중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인 14억 4,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.